



‘돌아온’ 임기영



지난주 NC전 선발...5.1이닝 호투 시즌 첫 승
직구·체인지업 위력 살아나 구위 속세 해결
KIA 4·5 선발 키맨 부상...9일 한화전 재출격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임기영이 선발 개편의 키를 쥐었다. 지난 3일 NC다이노스전은 KIA 후반기 마운드의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경기였다. 이날 마운드에는 임기영이 선발로 등판했다. 지난 3월 26일 이후 임기영의 첫 선발 등판이자 시즌 6번째 등판. 첫 등판에서 4이닝 8실점으로 부진했던 임기영은 이후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오랜 시간 2군에 머물렀다. 그리고 6월 27일 1군에 재등 록된 임기영은 복귀 후 4경기에서는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날 경기는 2017년 KIA 우승을 이끈 선발 한 축이었던 임기영의 자존심 회복과 KIA의 남은 시즌 선발 로테이션 구상이 담긴 중요한 무대가 됐다. KIA는 올 시즌 내내 4·5선발 고민을 하고 있다. 기대했던 한승혁이 재활 실패로 자취를 감췄고 홍건희는 잇단 부진으로 지난 1일 SK전 등판 이후 선발에서 롱 릴리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선발 경험에 있는 임기영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개인은 물론 팀에게도 중요했던 경기에서 임기영은 5.1이닝을 3피안타 4사사구 5탈삼진 1실점(비자책)으로 막으며 지난해 9월 7일 넥센전 이후 첫 승을 신고했다. 경기가 끝난 뒤 "(올 시즌에는) 인터뷰를 못하는 줄 알았다"며 웃은 임기영은 "매 이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졌다. 아쉬우면서도 괜찮았던 것 같다. 공격적으로 던진 것은 좋았지만 볼넷 3개를 준 게 아쉽다. 볼넷을 줄였으면 (이닝을) 더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또 임기영은 "승택이의 리드가 좋았다. 자기만 믿고 던지라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던졌다. 직구 위주로 가자고 해서 결정적일 때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직구 구위"와 "체인지업 각"이라는 두 가지 속세를 동시에 풀어낸 경기였다. 임기영은 이날 49개의 직구를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138km. 체인지업은 17개를 구사했고, 슬라이더(13개), 투심(5개)으로 승부했다. 지난 시즌 임기영은 직구 구위가 떨어지면서 변화구 위력이 반감됐다. 특유의 체인지업의 움직임도

줄면서 고전했었다. 밋밋했던 체인지업에 움직임을 더한 임기영은 투구폼으로도 타자들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임기영은 "2군에 있으면서 황윤호와 박준태 등 타자들이 투구폼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멈췄다가 던지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며 "나한테 잘 맞는 느낌이다. 상대 타이밍도 뻗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KIA는 임기영의 활약과 양현종의 119분 완봉쇼까지 더해 NC전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지난 한 주를 4승 1패로 마감했다. 7위 삼성을 반 경기 차로 쫓게 됐고 '가을잔치'의 마지막 선인 5위와도 5.5경기 차로 좁혔다. 새로운 선발 계산을 하게 된 KIA는 오는 9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임기영을 다시 선발로 투입한다. 앞서 월랜트와 김기훈이 LG와의 홈 2연전 선발로 나서고, 터너가 8일 재등륙돼 안방에서 한화를 상대한다. KIA는 주말에는 대구로 건너가 양현종-월랜트를 선발로 내세워 삼성과 2연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속타자’ 강백호

평균 타구 속도 144km KBO 1위...KIA 최형우 7위

KT 위즈의 강백호가 올 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구'를 양산한 타자로 나타났다. KBO 공식 기록통계업체 스포츠투아이는 5일 "타구추적시스템(HTS) 데이터를 바탕으로 KBO 리그 타구를 분석했다"며 "시속 150km 이상으로 날아간 타구를 '강한 타구'로 정의했을 때, 이 타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타자는 강백호(KT)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강백호는 HTS 기준 번트를 제외한 인플레이 타구 200개 이상 기록한 타자 50명 중 강한 타구 비율 47.3%를 기록,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병호(키움)가 41.4%로 2위에 랭크됐고 제리 샌즈(키움·41.3%), 김현수(LG·41.2%), 김재환(두산·40.6%) 순이었다.

지난 4일 통산 300홈런을 날린 KIA타이거즈의 4번 타자 최형우는 38.1%의 비율을 보이며 전체 7위를 차지했다. 강한 타구는 안타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 시즌 시속 150km 이상 속도로 날아간 타구는 타율 0.599, 장타율 1.062를 기록했다. 강백호는 인플레이 타구 평균 타구 속도 부문에서도 평균 144km를 찍으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42.4km의 김재환이다. 한편, 6월 25일 사직 롯데전에서 수비 도중 손바닥 부상을 당한 강백호는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쉽다!

안병훈 PGA 윈덤 챔피언십 2타차 3위

3R 내내 1위 질주하다 4홀 남기고 역전패
5년간 준우승만 4회...페덱스컵 랭킹 57위로

안병훈이 또 한 번 우승 문턱에서 돌아섰다. 안병훈은 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시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62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였지만 J.T. 포스턴(미국)에 2타가 모자란 20언더파 260타로 3위에 그쳤다. 앞선 사흘 동안 내내 선두를 달려 PGA 투어 첫 우승의 기대에 부풀었던 안병훈은 시즌 최고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2015년 PGA투어에 뛰어들어 안병훈은 그동안 연장전 패배 2차례를 포함해 준우승만 세 번 했고 아직 우승이 없다. 페덱스컵 82위였던 안병훈은 페덱스컵 랭킹을 57위로 끌어 올려 70위까지 나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 2차전 출전을 확정하는 성적을 올렸다. 42만1600달러의 상금을 받아 2년 연속 200만달러 돌파도 예약했다. 포스턴은 이날 3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했으나 이날 1개와 버디 6개를 쓸어담으며 8타를 줄여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포스턴은 2년 전 헨리크 스텐손(스웨덴)이 세운 대회 최소타 기록(258타)과 타이틀을 이뤘다. 또 PGA투어에서 45년 만에 72홀 노보기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완성했다. PGA투어에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 노보기 우승은 1974년 리트 레비노(미국) 이후 한번도 없었다. 김시우는 6언더파 64타로 5위(17언더파 263타), 임성재는 5타를 줄여 공동6위(16언더파 264타)로 대회를 마쳤다. 김시우는 페덱스컵 랭킹이 45위, 임성재는 23위가 됐다. 한편 PGA투어는 이 대회를 끝으로 정규시즌의 막을 내리고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8일 개막하는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는 125명, 2차전 BMW 챔피언십은 70명 그리고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은 30명만 출전한다. /연합뉴스



고진영 LPGA 브리티시오픈 2타차 3위

3승 대기록 놓쳤지만 '메이저 퀸 오브 퀸'
한국선수 박인비·유소연 이어 세번째

'메이저 사냥꾼' 고진영(24)이 한 시즌에 메이저 3승에 강력하게 도전했으나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브리티시오픈(총상금 450만달러)을 3위로 마쳤다. 고진영은 4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밀턴킨스의 워번 골프클럽(파72·675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선두 경쟁을 벌였으나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올해 ANA 인스퍼레이션과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2013년 박인비(31) 이후 6년 만에 한 해에 메이저 3승을 하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 확정에 의미를 두게 됐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는 1년에 다섯 차례 열리는 메이저 대회 성적을 합산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유일하게 2승을 거둔 고진영이 2019시즌 수상자로 확정됐다. 한국 국적의 선수가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를 받은 것은 2015년 박인비, 2017년 유소연(29)에 이어 세 번째다. 대회 우승은 18언더파 270타의 시부노 히나코(일본)가 차지했다. 일본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977년 여자 PGA 챔피언십 하구치 히사코 이후 올해 시부노가 42년 만이다. 박성현은 10언더파 278타로 8위, 이정은은 9언더파 279타로 9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했다면 사상 최초로 한 해에 메이저 4승을 합작할 수 있었으나 한국 선수들은 세 차례 우승으로 올해 메이저 대회를 마쳤다. 고진영이 2승, 이정은이 6월 US오픈을 제패했다. 한국 선수들이 한 해에 메이저 3승을 한 것은 2012·2013·2015·2017년에 이어 올해가 다섯 번째다. /연합뉴스

